均如鄕歌에 사용된 否定의 표현에 대하여

안정희*

要約

본고는 균여(923-973)의 普賢十願歌를 대상으로 借字를 사용하여 표현한 否定의 체계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否定의 표현은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의 그것과 통사적, 의미적 기능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세/현대국어의 '아니 부정문' 과 '몯 부정문' 은 각각 借字덩어리 不冬/不喩와 毛冬/毛等으로 표현되었다. '不冬'은 모두가 용언부정문에 사용되었으며 '不喩'는 체언부정문에 사용되었다. 毛冬/毛等은 용언부정문에 사용되었다.

'毛冬留'는 중세어 존재사 '잇다'의 반의어인 '없다'의 부사적 활용형으로 기능한다. '毛冬留'의 분포상황과 통사적 기능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間王'으로 오독되어온 차자 '王'자가 사실은 부정소를 형성하는 '毛'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間王 + 冬留'로 끊어 읽던 것을 '間 + 毛冬留'로 끊어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없다'는 의미를 가진 '毛冬留' 외에도 '于萬/于音' 그리고 '无叱/无史' 등이 함께 씌었다.

*핵심어 : 부정사, 차자단위, 不冬, 毛冬, 毛冬留, 于萬, 无叱

* 함부르크大 한국학과

1. 머리말

부정의 표현법은 형태적, 의미적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행위나 상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중세/현대국어에서 부정부사 '아니'나 부정을 표현하는 용언 '아니+ᄒᆞ-'로 표현되고, 다른 하나는 대개 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몯'이나 '몯+ᄒᆞ-'로 표현된다. 여기에 서술격 조사 '이-(是)'의 부정형인 '아니-(非)'와, 존재사 '잇-(有)'의 반의어 '없-(無)' 그리고 인식동사 '알-'의 반의어 '모ᄅᆞ-/알디 몯ᄒᆞ-' 도 포함하면 부정형의 의미범주는 더욱 넓어진다.

고대국어에서도 차자를 사용하여 부정을 표현하였으며, 그 의미와 문법기능에 있어서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본고에서는 고대국어 텍스트 자료의 하나인 균여의 普賢十願歌를 대상으로 借字를 사용하여 표현한 부정의 표현법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삼국유사 소재의 新羅鄕歌는 논외로 하고 普賢十願歌만을 택한 이유는 후자가 한 작가에 의해 쓰여진 만큼 차자표기법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과 원본의 해독을 밑받침해 주는 普賢十願歌의 漢譯詩와 漢譯 華嚴經 등 관련 자료가 풍부하여 시가 해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의 단위로서는 부정을 나타내는 차자로 하되 그 차자가 나타나는 원본의 노래의 行을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텍스트에 나타난 부정을 표현하는 차자를 밝히고, 이 차자가 형성하는 체계화된 借字의 덩어리를 밝힌 다음 이들이 나타내는 통사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그 분포상황과 통합현상을 분석하여 문법적인 기능과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부정문과 관련되는 차자덩어리는 그에 해당되는 중세어와 대응시켜 비교·분석하였으며 그들이 균여향가에서 어떻게 음독되었는지는 체계적 연구를 따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다만 이두의 독법을 밝혔다.

2. 否定形態 '不冬' 과 '毛冬/毛等'

균여향가에서 부정 형태를 형성하는 차자는 '不'과 '毛' 두 字이다.

2.1. '不' 의 통합관계와 그 기능

15세기 문헌이나 언해서를 보면 '不'은 "아니ᄒᆞ논 ᄠᅳ디라"(訓解, 釋祥序 3)로 번역되어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에 해당하나 간혹 '몯'으로도 새겨서 번역된 예를 볼 수 있다. 균여향가에서 예외 없이 부정문을 만든다는 사실과 중세/현대국어에 변함없이 나타난 '아니부정문'을 참작할 때 차자 '不'은 훈독자임이 분명하다.

균여향가에서 '不'은 5번 쓰였는데 그중 4번은 '冬'과 결합하여 '不冬'으로, 그리고 1번은 '喩'와 결합하여 '不喩'로 나타난다. 不에 후접하는 冬이나 喩는 차자의 문자 체계나 이두를 고려할 때 표음자로 추정된다.[1)]

1)[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 (V.08)
2)[不冬婆玉]內乎留叱等耶 (IX.04)
3)他道[不冬斜良只]行齊 (VIII.02)
4)佛影[不冬應爲]賜下呂 (VII.02)
5)吾衣身[不喩仁]人音有叱下呂 (V.04)

2.1.1. 不冬

1) 본고에서 균여향가의 예문 제시는 균여향가 11수에 'Ⅰ 禮敬諸佛歌, Ⅱ 稱讚如來歌, Ⅲ 廣修供養歌, Ⅳ 懺悔業障歌, Ⅴ 隨喜功德歌, Ⅵ 請轉法輪歌, Ⅶ 請佛住世歌, Ⅷ 常隨佛學歌, Ⅸ 恒順衆生歌, Ⅹ 普皆廻向歌, 總結無盡歌'와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각 향가의 행에 대해서는 '01, 02, ……, 10'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禮敬諸佛歌의 첫 행은 'Ⅰ.01'이 된다.

'不冬'이 나타난 통사적 환경을 보면 예문 1) 2) 3) 과 4) 모두가 동사에 선행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통사구조는

不冬 + 동사

로 나타낼 수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不冬'이 뒤에 오는 동사인 '喜(깃ㄱ-), 萎(이울-), 斜(빗ㄱ-), 應爲(응ᄒᆞ-)'에 선행하여 이 동사가 반영하는 행위를 부정하는 부사로 쓰인 것이다. 통사적으로나 의미상으로 보아 중세어의 부정부사 '아니'와 일치하며 용언부정문을 형성한다. 위 예문의 '不冬'이 이끄는 구절들을 중세어에 대응시키자면 각각 1) '아니 깃그-' 2) '아니 이울-', 3) '아니 빗그-', 4) '아니 응ᄒᆞ-' 에 해당되며 월인천강지곡의 비슷한 예를 들자면 "모딘 ᄃᆞᆯ 아니 깃ᄉᆞᄇᆞ리"(其190), "一毫도 아니 뮈시니"(其69) 등이다. 향가의 '不冬'이 나오는 예문들은 모두 짧은 형식의 부정문이다.

'不冬'은 고려시대 이두에도 자주 사용된 부정사이며 '안들'로 읽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두에서는 '不冬'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서술어 기능을 하여, 15세기의 '아니ᄒᆞ-'와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이승재 1992:85). 향가학자들은 이두독법을 따라 향가의 '不冬'을 '안들' 혹은 '안ᄃᆞᆯ'로 읽고 있으나 그 통사기능이 위에 열거한 예문에서 보듯이 이두에 나타나는 '不冬'과 다소 다르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2.1.2. 不喩

예문 5)의 '不喩'는 균여향가에서 그 용례가 딱 한 번뿐이다. 다시 말해 균여향가에 나타나는 빈도가 딱 한번인 '喩' 자는 '不'자와 통합되어 사용되었다. 동사와 관계가 있는 '不冬'과는 대조적으로 '不喩'는 명사와

관계가 있다. '不喩' 뒤에는 동명사어미 '-ㄴ'을 나타내는 한자 '仁'이 오고 이어서 '사람/남'으로 해석되는 명사 '人音'이 따른다. 따라서 '不喩'는 선행하는 '吾衣身'을 부정하고 동명사어미 '-ㄴ'과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통사구조는

명사 + 不喩(+仁) + 명사
(吾衣)身　不喩仁　　人音　　有叱下呂

이 된다. 해석을 하자면 '내 몸 아닌 남/사람 있으리'이다. 중세문헌『월인석보』에 나타난 부정문의 예 'ᄒᆞ나 아닌 거긔 둘 아닌 고ᄃᆞᆯ 불길씨'(월인석보 권8, 30장)와 통사구조가 동일한 체언 부정문이다.

'不喩'의 의미는 중세/현대어의 서술격조사 '이다(是)'의 반의어인 '아니다(非)'에 해당하며 체언부정문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不喩'는 漢語에서 '非'에 해당되는 향찰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不喩'는 고려시대의 이두문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안디'로 읽혔으며 항상 명사문의 부정에 사용된다고 한다(이승재 1992:85). '不喩'의 문법적인 기능은 이두와 균여향가가 동일하다.

이상과 같이 '不冬'과 '不喩'가 유도하는 부정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들의 통사적, 의미적 기능이 중세어의 짧은 '아니 부정문'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향가에서 '不'이 그 뜻을 이용하여 부정형태소로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不'은 훈독을, 그리고 그와 결합하는 차자 冬과 喩는 음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시사한다.

2.2. 毛의 통합관계와 그 기능

부정표현의 차자덩어리를 형성하는 '不'과 마찬가지로 '毛'도 향가에서 부정형태소를 형성한다. 균여향가에서 '毛'는 10번 나타나며 그 중 4

번은 부정을 나타내는 차자덩어리를 형성한다. '아니' 부정문을 형성하는 훈독자 '不'에 비해 '毛'는 '몯' 부정문을 형성하는 음독자이다.

'不'과 마찬가지로 '毛'는 '冬'과 통합하는 예가 많으며(3번), 드물게는 '等'과 통합하기도 한다(1번).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것은 3번 나타나는 '毛冬'이라는 덩어리가 그 중 두 번은 '留'와 더불어 세 글자로 이루어진 '毛冬留'로 나타나는 사실이다.

6) 善芽毛冬長乙隱 (VI.07)
7) 際毛冬留願海伊過 (XI.04)
8) 間毛冬留讚伊白制 (II.08)
9) 毛等盡良白乎隱乃兮 (II.11)

2.2.1. 毛冬

6) 善芽毛冬長乙隱 (VI.07)

여기에서 '毛冬'은 명사 '善芽'를 후행하며 동사인 '長(길-)'을 선행하고 있다. 통사적인 면에서 보면 '善芽'는 문장의 주어이며 술어인 '長乙'은 '毛冬'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다. 따라서 '毛冬'은 후행하는 동사를 부정하는 부사로 기능하여 그 통사구조는

毛冬 + 동사

이며 앞에 설명한 '不冬+동사'의 구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善芽 몯 기른'으로 해석되는 '毛冬'이 이끄는 부정문은 그 기능이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의 능력의 부정을 의미하는 '몯'에 대응하는 것으로 행위의 부정인 '아니'를 의미하는 '不冬'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위 예문의 '毛冬'에 해당하는 중세국어의 예를 찾는다면 짧은 형식의 '몯 부정

문' '敬心이 몯 오ᄋᆞ더시니'(월인천강지곡 其 128), '목숨 므거버 손소 몯 죽노이다'(월인천강지곡 其 142) 등을 들 수 있다.

이두에서는 '몯ᄒᆞ-'는 의미를 가진 소위 능력의 부정표현으로는 '不得'이 사용되었으며 '毛冬'은 아주 드물게 사용되었다고 한다(이승재 1992:87). 이두에 나오는 '毛冬'의 독음은 '모ᄃᆞᆯ'로 추정되었다. 후대 이두 자료집에서 '不得'이 '모질' 혹은 '모딜'로 읽히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균여향가에서는 그 의미기능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부정형태소 '不'과 '毛'가 이두에서는 일반적으로 '不'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2.2. 毛等

'毛等'은 균여향가에서 한 번만 사용된 부정표현이다.

9) 毛等盡良白乎隱乃兮 (II.11)

'毛等'은 후행하는 서술절 '盡良 白...'를 부정하는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몯 다아 사뢴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예문의 '毛等'의 기능은 이에 유사한 중세문헌의 예 'ᄀᆞᆺ 업스실ᄊᆡ 오ᄂᆞᆯ 몯 ᄉᆞᆲ뇌'(월인천강지곡 其 26)에 나타나는 부정부사 '몯'과 동일하다. '毛等'도 앞에 언급한 '毛冬'과 마찬가지로 짧은 형식의 부정문을 이끌고 있다.

통사적인 기능에 있어서 '毛等'은 '毛冬'과 일치하며 의미상으로도 '몯'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점에서도 같다. 통사적으로 보나 의미로 보나 그 기능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毛冬'과 '毛等'이 유사한 한자의 독음에 바탕을 둔 동일한 문법형태의 다른 표기[異表記]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9)의 부사 '盡良' 앞에 '毛冬' 대신 '毛等'이 쓰인 것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 또한 균여향가에 부정부사 '몯'의 기능으로 '毛冬'

과 '毛等'이 사용되었으나 '아니' 부정부사로는 '不冬'만 나타나고 '不等'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흥미 있는 사실이다.

고려시대의 이두자료에서 '毛冬'이라는 부정형태는 발견할 수 있으나 '毛等'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두에서는 '等'이 부정요소에 後接한 예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향가에서 '毛等'과 '毛冬'이 이를 後行하는 차자에 준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2.3. 毛冬留

예문 7)과 8)에서 '毛冬'은 '留'를 동반하고 있다.

7) 際毛冬留願海伊過 (XI.04)
8) 間毛冬留讚伊白制 (II.08)

2.3.1. 際毛冬留

먼저 '毛冬留'가 나오는 예문 7) 際毛冬留願海伊過 (XI.04)에 대한 향가학자들의 해독을 살펴보자.(유창균 1994:1087).

7) 際毛冬留願海伊過

가) ᄀᆞᆺ 몰을 願海이라라 (소창)
나) ᄀᆞᆺ 모ᄃᆞᆯ 願海이고 (양)
다) ᄀᆞᆺ 모ᄃᆞᆯ 願海이와 (이)
라) ᄀᆞᆺ 모ᄃᆞᆯ 원히이고 (홍)
마) 그음 두루 원히이과 (정)
바) ᄀᆞᆺ 모ᄃᆞᆯ 願海이고 (지)
사) 갇 모ᄅᆞᆯ 원해닏고 (김선)
아) ᄀᆞᆺ 모ᄃᆞᆯᄅᆞᆯ 願海이고 (김준)

자) 叉 모ᄃᆞ논 願海이고 (김완)
차) 叉 모ᄃᆞᆯ로 願海이가 (유창)

여기에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毛冬留'를 '모르다'는 부정을 나타내는 하나의 의미단위로 보고 있으며 그에 선행하는 '際'를 명사 '叉/叉'으로 해독하며, 후행하는 '願海伊過'는 '願海이고'라는 명사적 서술절로 보는 데에 일치하고 있다.

'毛冬留'라는 차자덩어리는 학자에 따라서 '몰을/모ᄅᆞᆯ'과 '모ᄃᆞᆯ' 두 가지로 독음되고 있다. 전자는 '毛冬'을 중세어 '모ᄅᆞ-'에 대응하는 借字로 보고 후자는 부정부사 '毛冬'에 '몯'과 '올-'이 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어로 그 의미를 옮긴다면 '모르다' 와 '몯 알다'로 그 의미는 결국 같은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선행하는 '際'는 타동사 '모ᄅᆞ-/모ᄃᆞᆯ'의 목적어가 되는 셈이다. 또 '毛冬'을 뒤따르는 '留'의 기능은 동명사어미 '-ㄹ'로 후행하는 명사 '願海'를 수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留'를 동명사어미 '-ㄹ'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균여향가에서 동명사어미 'ㄹ'은 '-尸'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毛冬'을 '모ᄃᆞᆯ/몯올'로 해독한 근거는 이두에서 '不冬'을 '안들/안ᄃᆞᆯ'로 읽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한 균여향가에 나타나는 부정부사의 통사관계를 고찰하면, 지각동사 '알다'의 부정표현인 '몯 알다'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정부사 '毛冬' 다음에 '알다'를 의미하는 동사를 나타내는 차자, 예를 들어 '知'는 하나의 독립된 형태소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에 제시했듯이 '毛冬'의 '冬'자는 부정표현의 말음 음독자로 쓰인 것이지 동사 '알다'를 의미하는 차자는 아님이 분명하다.

필자는 '留'를 부사어미로 보고 '毛冬留'라는 덩어리는 부정부사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그 의미는 '잇다'의 부정인 '없다'로 추정하여 선행하는 명사와 더불어 '叉없이'로 해독하였다. 뒤에 이 의미의 추정에 대해

자세히 피력하겠다.

2.3.2. '間王冬留'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독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균여향가의 부정표현 '毛冬'은 앞에 언급한 예문 6)과 7)의 두 가지 예로만 알고 있었다. 그 원인은 예 8)의 '間毛冬留'의 '毛'를 '王'으로 誤讀한데 있다.

향가연구가 시작된 小倉進平(1929)와 양주동(1942)에서부터 지금까지 '間+毛冬留'의 '毛'자는 '王'자로 인식되어 '間王+冬留'로 해독되어 왔다. 균여향가에서 王자는 '覺樹王'과 '間王'에 2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왔으며 학계에서는 '間王'을 용례를 찾을 수 없는 특수한 단어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측도 여러 가지로 혹자는 '覺樹王'과 유사한 부처의 호칭 중 하나로, 혹자는 스님, 醫王 등으로 해독했다.

유창균(1994)에 수록된 '間王冬留讚伊白制'(Ⅱ.08)에 대한 제 학자들의 해독은 다음과 같다.

예문 8) 間王冬留讚伊白制 (Ⅱ.08)

가) 間王들을 기리숣제 (小倉進平)
나) 西王ᄃᆞᆯ루 기리숣져 (양주동)
다) ᄉᆞᆫ왕ᄃᆞ로 기리ᄉᆞᆯᄃᆞ (이탁)
라) 한왕들로 기리숣져 (홍기문)
마) 간왕드루 기리숣져 (정렬모)
바) 숫님ᄃᆞᆯ루 기리숣져 (지헌영)
사) 깐왕들루 기리살재 (김선기)
아) 숫님ᄃᆞᆯ루 기리숣져 (김준영)
자) 醫王들로 기리숣져 (김완진)
차) 空王ᄃᆞᆯ로 기리숣져 (유창균)

'毛'자 한 字를 오독한 결과로 사실은 부정문이어야 할 문장이 긍정문으로 해석되었으며, 차자덩어리의 통사적 관계는 물론 문맥도 통하지 않게 되었다. 모든 학자들이 예외 없이 의미단위를 '間王'과 '冬留'로 끊어 읽고 '間王'에 후속하는 '冬留'를 독립된 문법형태소로 취급하여 각각 복수 접미사 '-돌/들'과 도구격조사 '-로/루' 등으로 해독하였다. 뒤에 따르는 4자 단위체 '讚伊白制'는 모두가 동사적 서술절로 보는데 일치하고 있으며 그 의미 해석도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間王+돌+로+讚伊白制'라는 해독은 문맥으로 보나 어법으로 보나 옳지 않음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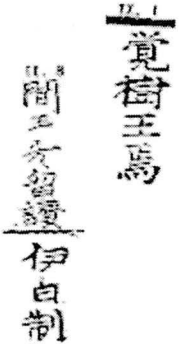
2.3.3. '間王/冬留'에서 '間/毛冬留'로 정정

필자는 위 예문 8)의 '王'을 '毛'로 訂正한 다음, 차자의 단위체를 '間王/冬留'에서 '間/毛 冬留'로 끊어 읽는다. 그리고 이 訂正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문자의 외형적인 형상을 검토, 비교하고 더불어 형태적, 통사적, 의미론적인 분석을 한다.

2.3.3.1. 글자의 외형적인 형상

의심을 가지고 균여향가 원본의 漢字 '王'을 자세히 관찰해 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王'字는 균여향가의 두 번째 노래에 '間王'으로, 또 9번째 노래에는 '覺樹王'으로 나온다. '覺樹王'은 부처가 菩提樹 밑에서 정각에 도달한 데서 나온 부처의 호칭임이 분명하나, 그 출처를 모르는 '間王'에 대한 향가학자들의 해독은 위에서 보듯이 아주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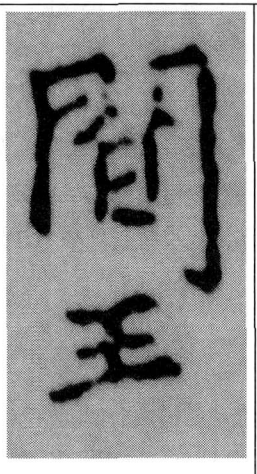
원본의 두 '王'字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그 글자의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첫째 글자의 크기에 있어 '間王'의 '王'자는 '覺樹王'의 '王'자보다 훨씬 왜소하다. 둘째 두 글자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완벽한 형태를 보이는 '覺樹王'의 '王'자에 비해 '間王'의 '王'자는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떨어져 나간 듯 보인다.

이러한 필치의 분명한 차이는 이들이 같은 글자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필자가 2009년 11월 구결학회 월례연구회에서 발표할 때 池炯律선생님은 흔히 재조대장경의 원본으로 사용되는 동국대 영인본은 이 부분이 탈각되어 '毛'字가 '王'字로 보이지만 月精寺에 소장되어 있는 재조대장경 영인본에서는 여전히 '毛'字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아래에 '毛'字의 아래 획이 탈각되어 '王'으로 보이는 동국대 영인본의 이미지, '毛'자가 잘 보존되어 있는 月精寺 所藏 재조대장경의 이미지, 그리고 '毛'字의 현재 아래 부분이 탈각되어 있는 해인사 소장 재조대장경 각판의 이미지를 보인다.[2)]

2) 이미지들은 金星周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09년 11월 구결학회 월례발표회의 상황과 이미지에 대한 서지적 고찰은 金星周(2010)을 참조할 것.


동국대영인본


월정사소장본


해인사 대장경각판

2.3.3.2. 형태적, 통사적인 견지

'覺樹王焉' : 명사 '覺樹王' 에 주제격 조사 '焉'이 후접하고 있다.

'間王冬留' : 명사 "間王"에 그 문법적인 기능이 모호한 冬留가 후접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향가학자들처럼 '冬留'를 각각 복수접미사와 기구격 조사라고 보면 후행하는 서술절 '讚伊白制(기리숩져)'와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이제 '冬留'가 나오는 통사적인 환경과 통합관계를 검토해 보자.

'冬留'는 균여의 마지막 노래 '總結无盡歌' 4행에 또 한 번 나온다(XI, 4). 여기서 우리는 '冬留'에 '毛'가 先接하는 것을 본다. 균여향가에서 '冬'자는 총 8번 나오는데 그 중 6번은 '不'(4번)과 '毛'(2번)에 後接하여 부정형태소를 형성한다. '王'에 後接한 경우는 위의 '間王冬留' 한 번뿐이다.

균여향가 내에서 '冬'자가 대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不'과 '毛'에 후접

한다는 사실과 '毛冬'혹은 '毛冬留'라는 통합형태가 반복해 나온다는 사실은 '間王/冬留'가 '間/毛冬留' 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원본의 '間王冬留'로 돌아가 '間王'의 '王'자와 '毛冬/毛冬留'의 '毛'자를 찾아 그 필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王'자의 마지막 획의 꼬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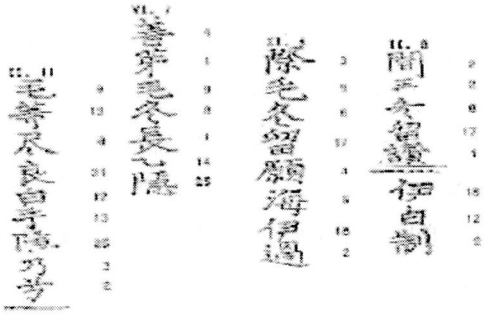
2.3.4. 毛冬留의 새로운 해독

이제 '間王冬留'의 '王'을 '毛'로 정정하고 7) 際毛冬留願海伊過(XI.04)와 8) 間毛冬留讚伊白制(II.08)를 비교·분석함으로서 '毛冬留'의 형태적, 통사적 기능과 의미를 정확히 규명해 보기로 하자.

7) 際 + 毛冬 + 留 + 願海伊過
명사 + 부정사 + 留 +(명사적)서술어미
8) 間 + 毛冬 + 留 + 讚伊白制
명사 + 부정사 + 留 +(동사적)서술어

7)과 8)의 통사구조는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예문에서 '毛冬留'는 선행하는 명사, '間'과 '際'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뒤에 따르는 서술절 '願海伊過'와 '讚伊白制'를 수식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留'의 통사적 기능이다. 향가학자들은 예 7)의 '願海伊過'를 명사적 서술절로 보고 '留'를 명사 '願海'에 선행하는 동명사어미 '-ㄹ'로 해독했다. 반면 예 8)에서는 '間王/冬留'를 '間王들'로 오독을 했기 때문에 '留'를 도구격조사로 보아서 서술부인 '讚伊白制(기리삽져)'와 문맥이 통하지 않았다.

위 두 예문에서 분명한 것은 선행하는 명사를 부정하는 '毛冬留'는, 후행하는 동사나 명사를 부정하는 예문 6)善芽毛冬長乙隱과 9)毛等盡



良白乎隱乃兮의 '毛冬' 혹은 '毛等'이라는 단위체와는 그 통사기능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사기능의 차이는 차자의 단위체가 표현하는 의미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毛冬留'의 의미기능은 '몯'을 의미하는 부정부사 '毛冬/毛等'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있는 것은 '毛冬留'가 나타난 두 예문이 통사구조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 볼 때도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이 유사성은 각 예문의 앞행들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稱讚如來歌의 제7행인 際于萬隱德海肹은 예문 8) 間毛冬留讚伊白制의 선행절이며 總結无盡歌의 제3행 衆生叱邊衣于音毛는 예문 7) 際毛冬留願海伊過의 선행절이다. 이 부분을 보현십원가의 저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역 화엄경의 대응하는 부분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독할 수 있다.

8) (際于萬隱德海肹) '(ᄀᆞᇫ 없는 부처님의 功德海를)' 間毛冬留讚伊白制 '싀 없이 기리리라'

7) (衆生叱邊衣于音毛) '(중생의 ᄀᆞᇫ이 없으매)' 際毛冬留願海伊過 'ᄀᆞᇫ 없이 願하리라'

흥미있는 것은 각 예문의 선행절과 후행하는 서술절을 서로 바꿀 수

있으며 그래도 그 의미는 같다는 것이다.[3] '끊임없이 願한다/讚揚한다'라는 서술어의 목적어는 바로 부처님의 '가없는 공덕'이며, 이 두 행을 통해 普賢十願歌의 주제가 결론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서 향가의 '間毛冬留'는 한역 화엄경의 '無有間斷(間斷 없이)'와 대응하며 '毛冬留'는 바로 '無有'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역 화엄경의 '無有間斷'은 균여향가 恒順衆生歌 제7행의 '念念相續 無間斷'에서 漢文 그대로도 나타난다.

'ᄀᆞᇫ 없다'는 표현은 한역 화엄경이나 다른 불경에 자주 나타나는 '無量無邊大功德'의 '無邊'에 대응하며 한자의 '無邊'을 'ᄀᆞᇫ/ᄀᆞᆺ 없-'으로 번역한 예는 중세문헌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際'와 '邊'이 균여향가에서 동일한 의미기능을 가지는 명사로 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창균(1994:477)도 '際'는 '會, 間, 接, 機, 邊...' 등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의미의 유사성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際毛冬留'와 '間毛冬留'는 'ᄀᆞᇫ없다'로 해석되며 이 의미는 각각 그들의 선행절인 '邊衣于音毛 ᄀᆞᇫ이 업수매'와 '際干萬隱 ᄀᆞᇫ 업슨'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여기에서 '毛冬留'가 기존의 해독대로 '모ᄅᆞ다/몯ᄒᆞᆯ다'의 뜻이 아니고 '없다'를 의미하는 한자 '無'의 향찰식 표기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예문 7)과 8)의 '毛冬'에 붙여진 '留'의 통사적 기능을 그에 후행하는 서술절과 관련시켜 검토해 보자. 앞서 논의한 대로 예문 8)에서 후행하는 서술절 '讚伊白制(기리숣져)'가 동사적 서술절인 만큼, '間毛冬留'의 '留'는 '毛冬'의 부사적 어미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통사구조와 의미가 유사한 예문 7) '際毛冬留'의 '留'도

3) '願海伊過'의 '海'를 'ᄒᆞ-'로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균여향가에서 'ᄒᆞ-'는 '爲'로 표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요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 밝히려는 논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므로 더 이상 상론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An(2003)을 참조할 것.

똑같이 부사적 기능을 하는 어미로 보아야 하며 이에 후행하는 '願海伊過'를 명사적 서술절이 아닌 동사적 서술절로 보아 'ᄇᆞᄅᆞ이고'나 '원ᄒᆞ이고'로 해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가학자들은 '願海伊過'의 '願海'는 명사이고 '際毛冬留'의 '留'는 명사 '願海'를 수식하는 동명사어미 '-ㄹ'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留'를 미래형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균여향가에서 현재형 '-ㄴ'은 차자 '隱'으로,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미래형 '-ㄹ'은 '尸'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향가학자들의 해독대로 '際毛冬留(ᄀᆞᆺ 모ᄃᆞᆯ)'의 '留'를 '-ㄹ' 동명사어미로 본다면 예문 8)의 '間毛冬留'의 '留'도 역시 '-ㄹ' 동명사어미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후행하는 '讚伊白制'는 '기리숩져'라는 동사적 서술절이 아니라 명사적 서술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間毛冬留 讚伊白制'는 '끊임없을 讚이숩져'라는 부자연스러운 해독이 나오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예문 7)과 8)의 '毛冬留'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위체가 동일한 통사적인 환경에서 사용되었으므로 그 통사적 기능도 동일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상 유사한 두 예문의 통사관계와 의미의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면 '毛冬留'는 '잇다(有)'의 부정인 '없다(無有)'의 부사적 형태이며 선행하는 명사와 더불어 부사구를 형성하여 동사적 서술절을 이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몯'을 표현하는 차자단위체 '毛冬'이 부사어미 '留'와 통합하여 원래의 의미기능과 다른 중세어 '업시'에 해당하는 부정표현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퍽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것은 균여향가에서 같은 차자의 덩어리로 표현되는 부정의 의미기능이 그 통합관계와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2.4. '없다'는 의미를 가진 또 다른 借字

2.4.1 于音/于萬

'于'는 균여향가에 5번 나온다. 그중 3번은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없다'를 의미하는 어휘의 頭音으로 쓰였다.

10) 衆生叱邊衣于音毛 (XI.03)
11) 際于萬隱德海肹 (II.07)
12) 曉留朝于萬夜未 (VII.05)

차자 '于'는 향가해독자들을 괴롭혀 온 요소였으며 따라서 '于'가 나타나는 문장은 의미분절과 해독이 다양하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독되어 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예문 10)의 邊衣于音毛는 '邊衣/于音毛', '邊/衣于音毛' 또 '邊衣/于音/毛' 등으로 끊어 읽혔다(유창균 1994:1081).

예문10) 衆生叱邊衣于音毛

가) 衆生　ㅅ ᄀᆞᆺ의 움에 (小倉)
나) 衆生　ㅅ 깨우미 (梁)
다) 衆生　ㅅ ᄀᆞᆺ이옴ᄃᆞᆫ (李)
라) 중생　ㅅ ᄀᆞᆺ 다로미 (홍)
마) 즁싱　ㅅ ᄀᆞ시 음뒤 (정)
바) 衆生　깨우미 (池)
사) 중생 ㄷ 같이 옴도 (김선)
아) 衆生　ᄀᆞ이 움이 (金俊)
자) 衆生　가싀오모 (金完)
차) 衆生 ㅅ ᄀᆞᆺ의 바돔 터럭 (유창)

이들 중 정렬모와 김준영은 '于音'의 讀音을 각각 '음'과 '움'으로 보았

으며 이것이 '없다'를 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해독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증이 결여된 데다 이 行을 뒤따르는 際毛冬留願海伊過와 서로 문맥이 통하지 않았으며 해독에 일관성이 없었다. '于音'에 해당되는 단어를 중세어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과 후행절의 오독이 정확한 해독에 장벽이 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이미 피력했듯이 예문 '邊衣于音毛'에서 소유격 조사인 '衣'에 뒤따르는 '于音'은 '없다'를 의미하는 어휘의 명사형이다. 다시 말해 차자 '于'는 '없다'를 의미하는 어휘의 두음이며 'ᄀᆞᆺ이 업수매'라고 해석되는 '邊衣于音毛'는 한역 화엄경에 나오는 '無邊'에 해당하는 향찰표기이다. 여기서 우리는 '없다(無)'는 의미를 가진 '于'라는 또 다른 차자 형태소를 관찰하게 되며 이는 다음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예문 11) 際于萬隱德海肹에서도 차자 '于'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문단분절에서도 '際于/萬隱'과 '際/于萬隱'으로 그 의견이 나뉘며 해독도 다양하다.(유창균 1994:901).

가) ᄀᆞᆺ이 먼 德바ᄅᆞᆯ (小倉)
나) ᄀᆞᆺ 업슨 德바ᄃᆞᆯᄒᆞᆯ(梁)
다) ᄀᆞᆺ 가ᄆᆞᆫ 덕 바ᄃᆞᆯ(李)
라) ᄀᆞᄉᆞ 먼 덕 바ᄅᆞᆯᄒᆞᆯ(홍)
마) ᄆᆞᆯ위 먼 덕 ᄇᆞᄅᆞᆯᄒᆞᆯ(정)
바) ᄀᆞᆺ 없는 덕바ᄅᆞᆯ(池)
사) 가주 만 독개깔(김선)
아) ᄀᆞᆺ 움언 德 바ᄃᆞᆯᄒᆞᆯ(金俊)
자) ᄀᆞᆺ 가만 德海ᄅᆞᆯ(金完)
차) 어울우 먼 德 바ᄃᆞᆯᄒᆞᆯ(유)

여기에서는 양주동과 지헌영이 '于萬隱'을 '없-'의 명사수식형 '업슨/없는'으로 해독하고 있다. 이 해독 역시 충분한 통사적, 의미적 해명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앞에서 '邊衣于音毛'를 '깨우미'라고 해독함으로써 같은 통사환경에서 나오는 동일한 차자를 서로 다르게 해독하는 태도를 보였다. '邊衣于音毛'에서 '于音'이 '업숨'이라는 명사형으로 쓰인데 비해 '際于萬隱'에서 '于萬隱'은 '업슨'이라는 동명사어미로 씌었다. '萬'에 後置한 차자 '隱'은 '-ㄴ' 동명사어미의 표지로서 '萬'에 포함된 관형형 '-ㄴ'을 다시 추가 표현한 것이다. '于萬隱'은 선행하는 명사 '際'를 부정하고 뒤따르는 명사 '德海'를 수식함으로서 그 구조는 '際(명사)+于萬隱+德海(명사)'이다. 해석하면 'ᄀᆞᆺ 업슨 德海'이며 無量無邊功德海라는 한역 화엄경의 구절에 해당한다.

예문 12)의 曉留朝于萬夜未에서도 현재관형형으로 쓰인 于萬이 다시 한 번 나타난다. 이 구절에서도 역시 차자 '于'가 걸림돌이 되어 의미분절이 학자에 따라 '朝/于萬/夜未', '朝于萬/夜未' 등으로 다양하다.

12) 曉留朝于萬夜未

가) 새벽으로 아촘 밤이 (小倉)
나) 새배루 아촘 바ᄆᆡ (梁)
다) 볼온 아줌 가만 밤ᄋᆡ (李)
라) 새배루 아ᄎᆞᄆᆞ로 바ᄆᆡ (홍)
마) 실 아촘 우만 바ᄆᆡ (정)
바) 새배루 아촘 바ᄆᆡ (池)
사) 샐 아차무만 밤애 (김선)
아) 새배루 아춤 바매 (金俊)
자) 붉논 아촘 가만 바매 (金完)
차) 새배로 아촘부터 먼 바ᄆᆡ (유)

여기에서는 아무도 '于萬'을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았다. 정렬모만이 于萬을 '우만'으로 읽었으나 그 뜻을 '깊다'로 보았다. 앞에서 '際/于萬隱'의 '于萬隱'을 동명사 '업슨/없는' 으로 해독한 양주동과 지헌영

은 '朝于萬'에서는 '于萬'이 '朝'와 함께 '아츰'을 표기한다며 일관성 없는 해독을 하고 있다.

'朝于萬夜末'의 '于萬'은 앞에서 분석한 '際于萬隱德海肹'의 '于萬隱'과 통사구조가 동일하다. '于萬'은 선행하는 명사 '朝'를 부정하고 뒤따르는 명사 '夜'를 수식함으로서 그 문단구조는 '朝(명사)+于萬+夜(명사)'로 표시할 수 있다. 해석하자면 '아침 없는 밤'이다. 이 예문이 나타나는 노래 請佛住世歌의 주제는 化緣을 다하고 이제 니르바나로 사라지려는 부처에게 이 세상에 더 머무르기를 바라는 노래이다. 여기에서 작자는 부처가 없는 세계를 '아침 없는 밤'에 비유한 것이라고 본다. 해독하기 어려운 문두의 '曉留'도 '朝于萬夜 아침 없는 밤'이라는 문맥과 연관시켜 더 연구해 볼 과제이다.

지금까지 균여향가 내에 '없다'는 의미를 가진 차자단위체로 '毛冬留'와 '于音/于萬'이 병행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毛冬留'가 부사어로 사용되었음에 반해 '于音/于萬'은 각각 명사형과 관형형으로 사용되었다. 흥미 있는 것은 이 '毛冬留'와 '于音/于萬'은 다 같이 그 뜻이 유사한 어휘 '際', '間' 그리고 '邊'에 후행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2.4.2. '无'와 '无叱'

균여향가에서 한자어 '無'는 '无'자로 7번 나온다. 그중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 '无'로 쓰인 것은 6번, 한번만 독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南无佛).

身語意業无疲厭 (I.10)
无盡辯才叱海等 (II.03)
无名土深以埋多 (VI.05)
念念相續无間斷 (IX.07)
南无佛也白孫舌良衣 (II.02)

7번 사용된 중에 2번은 '없다'의 의미를 가진 향찰식 표기로 '无叱'과 '无史'로 나타난다.

13) 得賜伊馬落人米无叱昆 (V.06)
14) 迷反群无史悟內去齊 (X.04)

예문 13) 人米无叱昆에서 '无叱(*업ㅅ-)'은 존재사 '잇-' 향찰표기인 '有叱'의 대립어로 쓰였다. '无叱'이 나타난 노래 隨喜功德歌 안의 '有叱下呂(있으리)'라는 종결문이 발견된다. 중세국어에서 '있으리/있으리오'같이 '-리'로 끝나는 종결형은 대개 수사의문형으로 화자가 말하는 것과는 반대의 현상, 즉 '없다'는 강한 부정진술을 함의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无叱'는 '有叱下呂'에 대응하는 향찰식 표기이며, 의미부 '없-(无)'과 말음부 'ㅅ(叱)'를 나타낸다.

예문에서 '无叱'의 앞에는 '사람/남'으로 해독되는 명사와 주격조사 '-이'의 합성표기인 '人米'가 오고 뒤에는 접속어미 '昆'이 따른다. 통사구조는 '주어+서술어'이며 해석을 하자면 '人米无叱昆'은 '사람이/남이 없고'이다. 이 구절은 앞 행에 나오는 '人音有叱下呂' 즉 '사람/남 있으리'라는 구절에 대해 '사람이/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예문 14) 迷反群无史悟內去齊애 나타난 '无史(*업시)'는 '업ㅅ-'의 부사형 표기로 중세어 '업시'에 해당한다. '无史'는 선행하는 명사 '群'에 걸려 부사구를 형성하며 후행하는 동사적 서술절 悟內去齊를 수식하고 있다. '无史'가 나타난 行의 통사구조는 '주어+无史+동사적 서술절어미'이며 앞서 분석한 '毛冬留'의 통사환경 '주어+毛冬留+동사적 서술절 어미'와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无史' 앞에 나타나는 명사 '群'이나 '人'이 구체명사이라서 '毛冬留'가 사용된 '際, 間, 邊' 등이 추상명사인 것과 다르다는 점이다. 迷反群无史悟內去齊를 해석하자면 '(길잃은) 무리 업시 깨우치고져'이다. 역시 같은 노래 普皆廻向歌의 마지막 행 吾衣身伊

波人有叱下呂에 '有叱下呂'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없다'는 의미로 쓰인 부정의 차자단위체의 분포상황을 요약하자면 '毛冬留', '于萬/于音'은 '際, 間, 邊'이라는 특수한 어휘에 후접하여 쓰인 반면, '无叱/无史'는 존재사 '잇다'를 나타내는 차자단위체 '有叱'에 대립하여 나타난다.

3. 맺음말

균여의 보현십원가에 나타난 부정문을 관찰한 결과 차자를 사용해 표현한 고대국어의 부정문은 중세국어나 현대국어의 그것과 통사적, 의미적 기능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세/현대국어의 '아니' 부정문과 '몯' 부정문은 각각 차자단위체 '不冬/不喩'와 '毛冬/毛等'으로 표현되었다. '不冬'은 모두가 용언부정문에 사용되었으며 '不喩'는 체언부정문에 사용되었다. '毛冬/毛等'은 용언부정문에 사용되었다. 균여향가에서는 짧은 형식의 부정문만 보이며 중세/현대문헌에서처럼 동사에 보조적어미 '-디/-지'를 매개로 한 긴 형식의 부정문은 보이지 않는다.

부정을 나타내는 차자의 환경을 분석하는 가운데 발견된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間王 冬留'로 오독되어온 '王'자가 사실은 부정을 표현하는 차자 '毛'라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균여향가에서 '毛冬留'라는 차자단위체는 두 번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이들이 유사한 통사적, 의미적 환경에서 사용되어 이 두 예문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毛冬留'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기능을 밝힐 수 있었다. '際, 間' 등 체언에 후접하는 '毛冬留'는 그 의미와 통사기능에 있어 중세국어의 부정부사 '몯'에 해당되는 '毛冬'과는 차이가 있으며, '毛冬'과 한 단위체를 이루는 '留'로 인해 부사적 활용형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의미에 있어서도 본래의 '몯' 부정의 범위에서 벗어나 '際'와 '間'같은 추상명사에 후접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곳업시', '식업시'로 해독된다.

또한 '없다'를 의미하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활용형으로서 '于萬隱'이, 그리고 명사적 활용형으로서 '于音'이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毛冬留'와 '于萬隱/于音'이라는 부정사는 그 의미가 유사한 어휘 '際', '間', '邊'뒤에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없다'를 의미하는 차자단위체로 '无叱'과 그의 부사형 '无史'가 쓰였다. '无叱', '无史'가 나타나는 같은 노래 안에는 그 반의어인 존재사 '有叱'이 발견된다. '无叱/无史'에 선행하는 어휘는 '人/人音, 群' 등으로 '毛冬留, 于萬隱/于音毛'에 선행하는 추상명사 '際', '間', '邊'과 의미 분야가 다르다.

본고에서는 균여향가에 나타나는 부정을 표현하는 차자덩어리를 정리하였다. 부정형태소의 활용형에 따라 다양한 차자덩어리가 병행하여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특수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 신라향가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확인,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고영근(1997), 『표준중세국어문법론(개정판)』, 집문당.

김준영(1991), 『향가문학』, 형설출판사.

남권희(1996), 高麗 口訣資料 '大方廣佛華嚴經' 卷弟十四의 書誌的 分析, 『구결연구』 1, 구결학회, 377-403.

남풍현(1976), 국어부정법의 발달,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55-82.

남풍현(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尸/ㄹ'에 대한 考察, 『구결연구』 1, 구결학회, 3-1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1972), 『新增類合』(영인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대제각(1973), 『釋譜詳節』(영인본), 대제각.

대제각(1973), 『月印千江之曲』(영인본), 대제각.
백두현(2005), 高麗時代 구결의 문자체계와 通時的 變遷, 『아시아 제민족의 문자』, 태학사, 287-384.
서종학(1995), 『吏讀의 歷史的 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심재기 · 이승재(1998), 華嚴經 口訣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구결학회, 29-111.
안병희(1987), 균여의 방언본 저술에 대하여, 『국어학』 16, 국어학회, 41-54.
유창균(1994), 『鄕歌比解』, 형설출판사.
이승재(1992), 『高麗時代의 吏讀』, 태학사.
이승재(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국어학』 26, 국어학회, 325-380.
장지영 · 장세경(1901), 『이두사전』, 정음사.
정재영(1995), 前期 中世國語의 疑問法, 『국어학』 25, 국어학회, 221-265.
지헌영(1991), 『鄕歌麗謠의 諸問題』, 태학사.
최남희(1987), 『고려향가의 차자표기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최철 · 안대회 역(1986), 『譯註 均如傳』, 새문사.
한정섭(1997), 『보현행원품』, 불교통신교육원.
赫連挺(1075), 『均如傳』 『高麗大藏經(補遺版 治函) 47』, 東國大學校出版部, 259-262.
홍기문(1956), 『향가해석』, 평양: 과학원(대제각 영인본)
홍기문(1995), 『리두연구』, 평양: 과학원(한국문화사 영인본)
황선엽(2002), 향가에 나타나는 '遣'과 '古'에 대하여, 『국어학』 39, 국어학회, 3-25.
An, Junghee(2003) *Concordance of the Characters in the Kyunyo-Hyangga*, Wiesbaden: Harrassowitz.
Buzo, Adrian & Prince, Tony(1993) *Kyunyo-jon: The Life, Times and Songs of a Tenth Century Korean Monk,* University of Sydney, East Asian Series Nr. 6 Canberra: Wild Peony.
Devi, Sushama(1958) *Samantabhadracarya-pranidhanaraja*, New Delhi, [Indo-Asian Literature 4]
Doi, Dorakazu(1978) *Das Kegon Sutra - Das Buch vom Eintreten in den Kosmos der Wahrheit,* Tokio.
Lancaster, Lewis(1979) *The Korean Buddhist Canon -A Descriptive Catalogu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ulleyblank, E. G.(1991) *Lexicon of Reconstructed Pronunciation in Early Middle Chinese, Late Middle Chinese, and Early Mandarin,* Vancouver: UBC Press.

Sasse, Werner(1988) *Studien zur Entzifferung der Schrift altkoreanischer Dichtung, Bd.1 : TheoryundPraxisderEntzifferung*, Wiesbaden: Harrassowitz.

Soothill, W. E.(1975) *A Dictionary of Chinese Buddhist Terms*, London; 1937, Reprint, Taipei.

Suzuki, Beatrice Lane(1932-5) *An Outline of the AVATAMSAKA Sutra* The Eastern Buddhist VI.

Takakusu, J & Watanabe, K(eds.)(1924-1929) *The Taischo Shinshu Daizokyo* (TheTripitaka大藏經), 10. Vols. Tokyo: The Taisho Shinshu Daizokyo Kanko Kai,(般若 詔譯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 大正原版 大藏經, 第十冊, 新文豐出版公司影印)

Dr. Jung-Hee An Lenzweg 18 22529 Hamburg GERMANY
E-mail: junghee_an@hotmail.com
접수일자: 2010.07.05
심사일자: 2010.07.26
게재결정: 2010.08.10

Negation in the Kyunyo-Hyangga

Ahn, Jeong-he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which Chinese characters or cluster of characters have been used for negation in the Kyunyo-Hyangga, and to describe their syntactic and morphological features. The characters and the cluster of characters containing negational morphemes are analyzed in their distribution, combination and syntactical circumstances, in which they occur. For this purpose, the concordance of the original text, in which the characters are presented in sentences, i.e. in lines of a song, were used.

In the Kyunyo-Hyangga, like in Middle and in Modern Korean, two kinds of negation could be found, ani-puchongmun and mot-puchongmun. The cluster 不冬/不喩 are used for ani-puchongmun, and 毛冬/毛等 for mot-puchongmun. 不冬 always preceedes the verb to be negated, while 不喩 occurs between nouns. 毛冬/毛等 precedes a verb, which is to be negated.

The analysis of frequency and combinability of a given character or clusters of characters, i.e. the surrounding characters, lead me to correct a hitherto wrong-interpreted character 王 to 毛. The correction could be verified by morphological, syntactical and semantical analysis as well as by the comparison of the graphical presentation.

The cluster of characters 毛冬留 meaning 'have not' is an adverbial flexional form of the MKor. verb 'ops-'. which is an antinomy of the existentialia 'is-'. The syntatic analyses of the sequence of the characters 毛冬 and 毛冬留

demonstrate that, semantically they belong to a different paradigm of negation, in which the former means 'can not' and the latter 'have not'. Further, for the negation meaning 'have not', 于萬/于音 and 无叱/无史 are used parallel in the text of the Kyunyo-Hyangga.